

관광이 핫해지니 우리도 성수난다!

연길 관광촬영업계 새로운 경영방식 발전 촉진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 김홍석 찍음

근 2년간 연길의 길거리에서는 조선족 전통복장차림을 하고 나선 화려한 '공주와 왕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연길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경험하는 관광 일정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바로 관광 기념촬영이다. 현재 연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관광 촬영은 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경제수입과 함께 사술식 발전의 경영방식으로 현지의 취업에 '승수효과'를 독특히 가져다주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음력 설 기간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연인원 15만 4,500명의 관광객을 접대했고 일평균 연인원 근 2만명이 몰려왔으며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 가운데는 '90 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조선족민속원에 위치한 추억필림민속촬영관에서 화장사로 근무 중인 박성하녀성은 지난해 3월부터 눈코 뜰 새 없는 드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일할수록 성수가 난다고 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면세점에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그때도 주로 메이크업 테스트를 맡아하였는데 가족의 수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귀국후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관광 촬영이 새롭게 흥기하면서 화장사들을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당시 한국에



추억필림민속촬영관의 화장사 박성하

서 정규적인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도 구전하게 따놓은 상태였던지라 강습에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취직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1절 그는 새벽에 출근하여 하루 사이 무려 23명의 메이크업을 도맡아해줄 정도로 바빠 돌아섰는데 올해 5.1절連休도 무척이나 기대된다고 했다.

또 다른 화장사 량평은 연길시회운겸민속촬영관에서 늘 바쁜 하루를 시작

한다. "화장사라는 직업은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분투하는 동력이 생기게 했다."

2023년초 관광 촬영의 인기를 예상한 그는 위탁에서 '연길시진달래직업강습학교 화장 수업' 신청 통지를 보았다. 정부 보조가 있고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신청했고 1주간의 강습을 통해 량평은 화장사 직업에 흥취를 느꼈으며 연길시 관

광 촬영의 전망에 대해 더욱 신심이 생겼다. 1년이 지난 현재 량평의 생활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전업 주부로부터 월 소득이 1만원을 넘는 직장인으로 되었고 연길시에서 새집도 구매했다면서 기뻐했다.

모 사진관에서 집대 책임진 진녀사는 올해 음력설 기간 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했으며 가장 바쁠 때에는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야 퇴근했다.

"비록 힘들지만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출근할 수 있어서 좋다."는 진녀사는 몇년전에 촬영사인 남편과 함께 운남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집에 한번 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명절이면 더욱 바빠다 보니 일년이 되어도 아이와 부모님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현재 연변의 관광 촬영이 발전하면서 이들도 귀향 장업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외지에서 떠돌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뻐했다.

현재 연길시의 관광촬영업계는 현지인들에게 대량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연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흡인하고 있다. 현재 연길시의 5, 6개 관광촬영관과 협력하고 있는 한일통이 바로 17명의 팀을 이끌고 삼아에서 연길로 온 하남 사람이다.

"우리는 꽃을 따라다니는 양봉인과 같다. 관광 발전이 좋은 곳이면 우리는 찾아간다." 대비 분석을 통해 그는 연길시의 관광촬영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내다보았다. 그리하여 2023년에 팀을 이끌고 삼아에서 연길로 왔다.

한일통의 소개에 따르면 "틱톡, 쇼홍수, 메이판에서 손님을 끌고 손님은 가게를 찾아와 확인후 메이크업을 받는데 촬영, 사진 선택, 사진 수정, 포토샵까지 절차마다 책임자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주문을 받아서부터 완성된 사진이 나오기까지 전반 과정에 적어도 10명의 스태프가 참여한다. 현재 조선족 전통복장 사진을 찍으러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은 연길 관광산업에 견인하는 주력군인 동시에 관광촬영업계가 취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22년말부터 2024년 3월까지 연길시에서 새로 등록된 관광촬영관은 191개, 현재 연길시에 등록된 관광촬영관은 6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희 기자

연변 10개 뉴미디어 계정 문화관광 분야 관련 상 수상

20일, 길림성달인방생활축제 및 2023년 문화관광 분야 뉴미디어 총결교류대회가 장춘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변의 10개 뉴미디어 계정이 수상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 문화관광 분야, 문화관광 기구와 기업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 분야 뉴미디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길림성문화관광청은 청박빅데이터와 손잡고 전 성 456개 문화관광 분야 뉴미디어 계정을 대상으로 2023년 길림성 문화관광 뉴미디어 영향력 관련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년간 틱톡 DCI 지수, 위챗 WCI 지수, 미니블로그 BCI 지수 및 각 플랫폼 전파 효과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계정, 각 기관과 기업의 플랫폼 입상 계정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연변문화라디오 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의 '연변문화관광' 계정과 틱톡계정, 미니블로그 그리고 돈화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및관광국의 동명 계정과 틱톡 계정, 미니블로그가 '최고영향력상'을 수상하고 연변가무단의 동명 틱톡계정과 연변박물관의 동명 계정, 연길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의 '연길관광' 계정, 훈춘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의 '취미훈춘' 계정, 룡정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의 '룡정문화관광텔레비전방송및체육국' 계정, 길림특정산실업주식유한회사의 '룡정산문화풍경구' 계정, 훈춘방천삼강국제관광집단유한회사의 '훈춘방천풍경구' 틱톡계정, 연변완사니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의 '연길공룡왕국' 틱톡계정이 '최고성장력상'을 받아안았다.

시상식에서는 또 '길림 빌딩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뉴미디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연변가무단과 중국조선족민속원 대표가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성공 사례를 전했다.

/ 김영희 기자

꽃구경 나들이 장소 검색 열기 92% 상승!



춘분 절기에 들어서면서 최적의 꽃구경 계절이 돌아왔다. 중국관광연구원의 소식에 따르면 국내 꽃구경 나들이 관광은 3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목적지, 풍경구와 꽃품종의 선택이 더욱 풍부하고 다원화되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모란꽃, 복숭아꽃, 유채꽃 외에도 자형화, 체리꽃, 매그놀리아(马兰花) 등 특징적인 품종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국내 주요 목적지와 풍경구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꽃구경 활동을 개최하고 중국 전통 문화 및 습속 체험과 꽃시즌 풍경이 결부

돼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면서 꽃구경 로선에 대한 주문량이 크게 증가했다.

꽃구경 목적지 검색 열기 상승 온라인 관광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에 단거리 당일 관광과 장거리 꽃구경 관광이 모두 인기를 보이고 있다. 3월이래 강서 우안, 매그놀리아(马兰花) 등 특징적인 품종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국내 주요 목적지와 풍경구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꽃구경 활동을 개최하고 중국 전통 문화 및 습속 체험과 꽃시즌 풍경이 결부

/ 중앙방송

청명절連休 '소도시' 관광 열기! 항공권, 호텔 예약 가능

청명절連休가 다가오면서 인기 도시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앞당겨 시작되었는데 전주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전국의 많은 곳에서 문화관광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소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권의 사전 예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도시' 항공권 예약 2배 이상 늘어

씨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청명절 휴가 상품 예약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배가량 증가했다. 그중 관광지 입장권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취날 플랫폼에서 3월 중순부터 청명절까지 친척 방문 및 관광객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연령 구조로 볼 때 27세-40세가 출생 주력군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규모 공항'이 있는 3선 이하의 도시가 청명절連休에 폭발적 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취날 빅데이터연구원 류정연구원은 취날 플랫폼에서 청명절連休에 광동 담강, 운남 망시, 절강 주산, 그리고 길림 연길 등 '소규모 공항'이 있는 도시의 항공권 사전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서 가격으로 볼 때 도시 호텔의 3분의 2가 평균 지불 가격이 300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청명절連休에도 북경,

남경, 무한, 항주, 상해, 중경, 서안, 장사, 소주, 성도는 여전히 출행의 인기 목적지로 꼽혔다. 목단강, 백산, 길림, 할빈 등 동북지역 도시의 호텔 가격은 음력설보다 50% 이상 낮고 시썬반나, 하문, 조주, 산둥, 북해 등 남부 인기 도시의 호텔 가격도 약 40% 인하되었다.

청명절連休 출입경 령격의 쌍방향 이동 뚜렷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 플랫폼의 항공권 예약 현황에 따르면 인기 해외 여행지는 타이 방콕, 한국 서울, 일본 도쿄와 오사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이며 일본, 한국의 벚꽃 시즌과 맞물려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목적지 호텔에 대한 사전 예약이 늘어났다. 이 밖에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밀라노, 스위스 자리히, 프랑스 파리 등의 행선지 검색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취날 빅데이터연구원 류정연구원은 항공권 가격 면에서 3월 30일과 31일 장거리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3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이고 4월 1일부터 2일까지는 3월 30일에 비해 40% 가까이 저렴해 여행객들이 더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민넷



촬영관에서 대의의상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 / 김홍석 찍음